

8일 개막 '총장축제' 뮤지컬 스타 총출동

박칼린·최정원·아이비 등 개막식 갈라쇼 출연

광주 동구 '추억과 비상' 주제 5일간 불거리 풍성

국내 최고의 도심축제인 총장축제가 가면 광주 문화예술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보고 즐길 수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광주시 동구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오는 8일 대대원의 막을 올린다.

이번 총장축제는 화려한 뮤지컬 방식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모든 연령대가 고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세계인과 함께 하는 거리퍼레이드 등을 통해 '비상(飛上) 하는 광주의 미래'를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2일 동구에 따르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총장로·금남로 일대에서 '추억과 비상'이라는 주제로 뮤지컬 갈라쇼·세계와 함께 하는 거리 퍼레이드·세계 전통악기 문화체험·추억의 장화퀴즈·추억의 번사극·거리공연(밴드·마임·마술 등) 등 54개 전시·참여·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축제에서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뮤

지컬계의 대부인 박명성 총장축제 총감독이 연출하는 개막식 뮤지컬 갈라쇼이다.

올해 첫 시도되는 갈라쇼에선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인 박칼린·최정원·전수경·아이비 등이 출연, 열정적이고 환상적인 뮤지컬 무대를 선보인다.

총장축제의 꽃인 거리퍼레이드도 꼭 봐야 할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예전과 달리 이번 거리퍼레이드엔 중국·인도네시아·멕시코·오세티아·카자흐스탄 등 해외공연팀 200명이 참석하는데, 이들은 거리퍼레이드에서 경극공연을 비롯한 자국의 전통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중국 취연자와 일본 요코하마 공연팀은 특별무대 주변 등에서 인형극과 플루트 공연을 축제기간 내내 진행한다. 취연자와는 원숭이 인형극으로 유명한 도시다.

방문객 참여형 행사인 '플래시 몹'도 즐길거리다. 이 프로그램은 5일간 매일 오후 4시 9개의 무대에서 진행되는데, 총장축

제11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 무대공연 일정표

특설무대	피크너무대	금남로무대	금남공원
8일 개막식	·세계민속예술제 ·총장 음악콘서트 ·아시아실버월드 ·오케스트라	·여성문화난장 ·두드림퓨전난타 ·추억의 고고장	·중국 경극 ·글로벌가축 한마당
9일 전국거리퍼레이드	·뷰티아트페스티벌 ·총장 음악콘서트	·세계문화예술공연 ·점핑 총장 ·추억의 고고장	·전국학생미술대회 ·추억의 사랑방
10일 세계예술공연 (일본·멕시코 등)	·한국청소년영화제 ·광주학생문화예술 동아리 축제	·복지박람회 ·M댄스 및 조이댄스	·전국주민자치경연대회 ·추억의 사랑방 (상인의 방)
11일 전국창작예술대회 총장 DJ 페스티벌	·동구청소년가요제 ·희망의 카니발	·총장거리 페스티벌 ·중요무형문화재 (강진배를놀이)	·총장병아리 축제 ·중국 인형극 및 마술공연
12일 폐막식	·청소년창작댄스대회 ·마당극(홍길동전)	·동구청장배 복싱대회	·중국인형극

제 주제인 '너랑 나랑' 주제가 나오면 관객들은 공연팀의 춤 등을 따라하면 된다.

그간 현재와 미래를 보고 즐겼다면 이제 과거 속으로 빠져보자. '추억의 테마거리'는 총장축제의 묘미 중 하나다.

광주극장 주변 골목길엔 재개발로 사라진 백화마을과 학동8거리의 병방다리·미로전망대·천막극장 등이 조성된다. 또 '추억의 번사극'은 물론 '7080 음악 DJ다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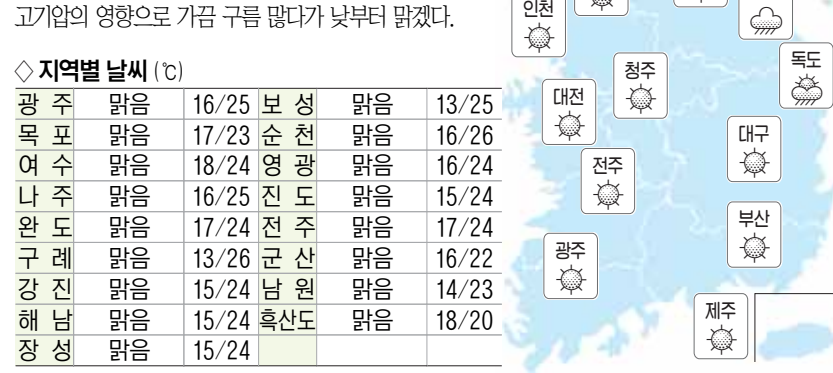
등도 열린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총장축제는 내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만들며, 비상하는 광주의 미래를 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8 해질 18:14
달출몰 14:29 달지름 00:22

아이 손잡고 어디갈까?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성
맑음	16/25	17/23	18/24	16/25	17/24	13/26	15/24	15/24	15/24
보통	16/26	16/24	15/24	17/24	16/22	14/23	18/20		

바다 날씨	종류	파고(m)	방향
서해	남부	0.5~1.5	북서~북
	남부	1.5~2.5	북서~북
남해	서부	0.5~1.0	북서~북
	서부	1.0~2.0	북서~북

주간 날씨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날씨	☀	☀	☀	☀	☀	☀	☀
기온	13/25	13/25	14/25	12/25	13/26	14/26	14/26

'뇌물수수' 혐의 前 진도서장 항소심 무죄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 진도경찰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진도경찰서 부하 직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진도경찰서장 김모(57)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서장에게 수사차례에 걸쳐 뇌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 진도경찰서 경리계장 김모(58)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700만원과 추징금 810여만원을, 김 전 계장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의 경우 경찰서 내 장기근무자인 김 전 계장을 인사발령에서 제외해준 대가 등으로 지난 2009년 70만원 상당의 명차와 180만원 상당의 전복을 지인 등 15명에게 배당시키는 등 수사차례에 걸쳐 김 전 계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특산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이 김 전 계장에 걸쳐 지난 2010년 설 및 추석 때 특산품으로 명차, 전복을 배송토록 한 것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또는 친분관계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나머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빛원전 김원동 본부장 직위해제...정보보안 관리 책임 묻어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 한빛원자력본부의 김원동 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대신 한빛원자력본부 김철준 제2발전소장을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서 용역업체 직원에게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정보보안 관리에 문제가 불거진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산업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유에 의거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광주학교 주최 '장애·비장애 청소년 지역명산 체험' 세번째

“구불구불 산길 안내한 내 짝궁 마음도 얼굴도 정말 예쁘겠죠”

세광학교·지혜학교 학생 300명 장흥 억불산 가을소풍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 앞을 보기 힘든 짝궁을 배려하며 걸으니 보이지 않던 나뭇잎 하나, 돌맹이 하나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꼼꼼히 안내하는 내 짝궁, 마음이 예쁘니 얼굴도 예쁘겠죠?”

2일 세광학교와 지혜학교 학생 300여 명이 올 가을 첫 소풍을 나선 곳은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장흥군 장흥읍 억불산 자락 편백나무 숲이었다. 이들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소풍을 경험했다.

(사)광주학교(교장 송갑석)가 주최하고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후원한 '2014 장애·비장애 청소년 우리 지역 명산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산에 올랐다. 세광학교 학생 혼자였으면 산행은 엄두도 못 냈을 테지만 이날만큼은 친구와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 됐다. 산행에는 장애도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

았다. 같은 학년생들과 연륜에서 나온 지혜를 나누는 만학도 멘토도 있었다. 안마사의 꿈을 키우는 형사원(45·세광학교 고등2년)씨는 “아버지 고향이 장흥인데 이곳 억불산에는 처음 올라본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늦게 시작한 공부라 속스럽지만 산을 오르면서 아이들이 ‘삼촌~’ 하며 동·식물에 대해 물어오니 어느덧 허물이 없어지더라”고 말했다.

형사와 같은 반인 주순애(여·61·세광학교 고등2년)씨는 산 중턱에 다다르자 힘에 부쳐 평상에 앉았다. 뒤따르던 지혜학교 학생들이 격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한 여학생은 가지고 있던 물을 건네고 다른 학생은 주씨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주씨는 “내 손수 같은 어린 학생들이 챙겨주니 힘이 절로 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옆 학생들은 주씨를 부축해 마침내 목표지점까지 오를 수 있었다.



2014 장애·비장애 청소년 우리 지역 명산 체험이 2일 오전 장흥 편백나무 숲에서 열렸다. 광주 세광학교와 지혜학교 학생들이 함께 숲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지혜학교에서 '목숨이 고맙'으로 통하는 김이레(18·지혜학교 고등2년)양은 일 일 짝궁 손 걸(17·세광학교 고등1년)군의 든든한 누나가 됐다. 기차가 꿈인 김양은 소풍날이 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설렌 날을 보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 때나 어른이 되어도 몸이 불편한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금세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말이예요. 다른 학교 학생도 꼭 이런 체험을 하면 좋겠어요”라고 당차게 의견을 냈다.

교사와 안전요원, 보조자들의 인솔 하에 2시간 동안 이어진 산행이 끝날 때쯤, 처

을 짝을 지을 때의 머뭇거림과 망설임은 없었다. 산행하는 내내 학생들의 가을 햇살 처럼 투명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헤어지는 길목에서는 그새 정이 들어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 나왔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한 송갑석 (사)광주학교 교장은 “우리 지역 명산의 숲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생태학습”이라며 “장애가 있든 없는 산을 함께 오르면서 편견을 버리는 자리를 만들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정홍=김용기기자·중부채본부장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문의062 **264-7789**

전용면적 57㎡

228세대

전 세대 남향배치

- 입주 전 베이커아웃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평형시스템 설치
- 욕실 내부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건사욕실(인벤)
- 방2개 및 주방 확장형
- 에어컨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인방 불배아장 설치
- 홈 오토시스템
- 주출입구 차량통제 시스템

용봉동 도나우타운 현장

용봉동

비엔날레 롯데 하이마트

용봉초등학교

농협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부설 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용봉초등학교

도나우타운 모델하우스

전대사거리

M/H 전대사거리 모야엘가 주택전사관 2층

복부경찰서

광주현대병원

용봉초등학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부설 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도나우타운 모델하우스

전대사거리

오픈 기념 **김장훈 팬사인회** 10월17일 OPEN